정답	01 ③	02 ④	03 ①	04 ④	05 ①	06 ③	07 ⑤	08 ④	09 ③	10 ①
	11 ④	12 ②	13 ⑤	14 ②	15 ②	16 ⑤	17 ④	18 ⑤	19 ①	20 ④
	21 ③	22 ⑤	23 ③	24 ②	25 ③	26 ⑤	27 ②	28 ①	29 ②	30 ①
	31 ⑤	32 ③	33 ④	34 ⑤	35 ③	36 ⑤	37 ③	38 ②	39 ④	40 ②
	41 ②	42 ①	43 ③	44 ④	45 ④	46 ①	47 ⑤	48 ①	49 ⑤	50 ①

해설

[01~05] (듣기)

01 반응의 적절성 ③

들려준 이야기는 보리의 유래와 기록(①), 농지 활용 면에서의 효용성(②), 보리가 새롭게 관심을 받는 이유로 정리할 수 있다. 관심을 갖는 이유로는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것과 소득을 높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⑤) 건강과 관련한 정보에는 영양소와 섬유소가 많이 들어 있다는 점이 제시되어 있다(④). 그러나 보리의 씹는 느낌과 맛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다.

02 세부 정보의 파악 ④

들은 정보를 절차에 따라 세부적으로 이해하면 풀 수 있다. 우선 남성들이 쓰는 모자가 아닌 것은 '전모'이다. 그리고 양반이 쓰는 모자가 아닌 것은 '패랭이'다. 그리고 말총을 재료로 하지 않은 모자는 '전모, 패랭이, 유건'이다. 외출할 때 쓰이지 않은 모자는 '탕건'이다.

03 이어질 내용 유추 ①

첨단 기술로부터 소외된 다수를 위한 기술을 가리키는 적정 기술에 대한 대담이다. 아프리카 주민들을 위한 '큐드럼'이나 몽골인을 위한 '지세이버'는 모두 물을 얻기 어려운 주민들의 편의성과 난방 효율이 중요한 지역민들을 위한 적정 기술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들은 지역의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② 첨단 과학에서 소외된 다수를 위한 기술이 적정 기술이다.
⑤ 특정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기술이 적정 기술이다.

04 세부 정보의 파악 ④

남학생은 리더의 자질로 성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을 존중하는 태도, 계획을 잘 세우는 능력과 이를 통해 구성원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 마지막으로 단체를 우선적으로 생

각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다. 성과의 기여도에 따라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여학생이 생각하는 것이다.

05 말하기 방식의 파악 ①

남학생과 여학생은 리더의 자질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통해 주장하고 있다. 여학생은 합창반의 사례를 남학생은 연극반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 오답 피하기** >> ② 자료를 열거하고 있지 않다.
③ 전문가의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다.
④ 모호한 진술은 남녀 모두 없다.
⑤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06~10] (쓰기)

06 이끌어 낸 내용의 적절성 평가 ③

메모 내용을 바탕으로 이끌어 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는 것은 ③이다. 메모의 세 번째 항목을 보면 가장 보람 있었던 일로 봉사 단체에서 운영하는 과학 교실에서 도우미로 일했던 것을 들고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과학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관련 단체에서 활동한 것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① 메모의 첫 번째 항목에서 이끌어 낼 수 있다.
② 메모의 두 번째 항목에서 이끌어 낼 수 있다.
④, ⑤ 메모의 다섯 번째 항목에서 이끌어 낼 수 있다.

07 개요의 수정 보완 ⑤

거짓말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의 하위 항목으로 '불신 풍조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소통 단절'은 적절하다. 거짓말이 횡행하게 되면 불신 풍조가 생기고 이로 인해 사회적 소통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자기 방어와 자기 보호 심리는 거짓말의 심리적 동기에 해당하므로 교체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거짓말의 양상의 하위 항목으로 근절되지 않는 주변국의 한국사 왜곡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③ 작성 계획의 원인 항목은 구조 및 제도적 차원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한 항목이 추가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성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인 항목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08 구상의 적절성 평가 ④

글쓰기 구상을 보면 현책 교환 행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도서 구입비용 절감과 자원 절약 및 환경 보호에 기여를 기대 효과로 두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지역 주민의 새 책 구입을 촉진하여 출판 시장에 활력을 부여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 오답 피하기** >> ① 글감의 첫째 항목과 관련성이 높다.
② 글감의 넷째 항목과 관련성이 높다.
③ 글감의 둘째 항목과 관련성이 높다.

⑤ 글감의 셋째 항목과 관련성이 높다.

09 고쳐 쓰기의 적절성 ③

글을 전개하는 순서를 보면 내소사의 역사 소개에 이어 꽃살문 묘사, 그리고 꽃살문의 의의 순으로 서술 되어 있다. 이러한 순서를 고려한다면 꽃살문의 의의에 해당하는 것은 넷째 문단이다. ㉠은 꽃살문 묘사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① 전개 순서의 처음에 내소사의 역사 소개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② 꽃살문 묘사는 전체에서 부분으로 전개하도록 하였으므로 문단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④ 꽃살문의 의의에 비추어 볼 때 ㉠은 어울리지 않는다.
⑤ 사진을 보면 꽃살문이 잘 드러난 사진이 아니므로 교체하는 것이 어울린다.

10 조건에 맞게 쓰기 ①

마지막 전개 내용은 감상이다. 그런데 이 감상을 관용 표현과 의인법을 활용하여 쓰라고 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할 때 ①이 적절하다. 꽃살문이 내게 말을 해주었다는 의인법과 백문이 붙어일건이라는 관용 표현을 활용하였고 내용에도 어울리기 때문이다.

- 오답 피하기** >> ② 의인법이 사용되지 않았고 내용 역시 문화재 답사기를 쓰기 위한 계획과 어울리지 않는다.
③ 의인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 의인법과 관용 표현이 모두 사용되지 않았다.
⑤ 의인법이 사용되지 않았고 내용 역시 어울리지 않는다.

[11~12] (어휘 · 어법)

11 어휘 사이의 관계성 ④

둘 이상의 단어가 긴밀하게 결합되어 하나의 구성 단위로 인식되는 경우를 찾아야 한다. ‘뜨거운 눈물’과 ‘새파란 젊음’에서 ‘뜨거운’과 ‘새파란’을 다른 어휘로 바꾸면 어색해지는 것을 볼 때 이 것이 적절한 사례라 할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높다란’ 대신에 다른 어휘를 써도 어색하지 않다.
② ‘진정한’ 대신에 다른 어휘를 써도 어색하지 않고, ‘싹누런’도 ‘누런’으로 교체해도 적절하다.
③ ‘차가운’ 대신에 다른 어휘를 써도 어색하지 않다.
⑤ ‘가벼운’ 대신에 다른 어휘를 써도 어색하지 않다.

12 연결어미의 이해와 적용 ②

ㄱ, ㄴ, ㄹ을 보면 ‘-(으)면서’와 ‘-자’가 어울리는 어미에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ㄱ에서는 과거 시제 어미와 어울리지 않고, ㄴ의 경우에도 과거 시제 어미와 어울리지 않는다. ㄹ의 경우는 ‘-(으)면서’가 다양한 문장 형태에 적용 가능함을 보여 준다.

- 오답 피하기** >> ① ‘-(으)면서’와 ‘-자’는 동시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과거 시제와 어울리지 않는다.
③ ㄴ을 보면 앞의 주어 ‘동수’와 뒤의 주어 ‘비’가 다르므로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나, ㄹ을 보면 앞뒤의 주어가 같아서 어색한 문장이 되었다.
④ 상냥한 성격과 차분한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나열이 동시에 나타남을 알

- 수 있다.
- ⑤ 바를 보면 '보지 않으면서'의 '-(으)면서'는 행위를 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13~16] (현대소설) 이태준, '돌다리'

13 사건 순서에 따른 내용 파악 ⑤

이 글의 사건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어머니께서 창섭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이어서 창섭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한 것이고, 아버지께서 다시 개울로 나가시고, 장정들이 다릿돌을 올려놓는 일이 이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버지께서 돌아와 점심상을 받는 것이다.

14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②

〈보기〉에 따르면 아버지는 주체로서 땅에 대한 완고한 성격을 보이는 인물이면서 동시에 세계에 해당하는 창섭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완고한 성격의 인물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창섭이 아버지와의 갈등을 해결했다고 볼 수 없다.
 ③ 창섭은 고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지 않는다.
 ④ 아버지는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다.
 ⑤ 어머니는 창섭의 제안을 주저 없이 수용한다는 점에서 갈등하는 인물이 아니다.

15 발화의 의도 파악 ②

창섭의 발화 부분을 서술한 [A]는 창섭이 고향에 내려온 이유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창섭의 의도가 잘 나타나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자신의 병원을 넓히는 동시에 아버지, 어머니를 모실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기에는 지금이 좋은 시기임을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창섭은 이해 관계에 밝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시국 탓에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것은 현실의 조건으로 창섭의 현실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도, 이유가 되지도 않는다.
 ④ 직원 합숙실은 병실 용도로 생각하는 것이므로 창섭의 배려심과는 아무 관련성이 없다.
 ⑤ 서술 부분이라 말투는 드러나지 않으며 아버지에게 대한 태도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

16 외적 준거에 따른 해석 ⑤

이 글을 보면 아버지는 땅에 대한 장소애가 명확한 인물이지만 어머니와 창섭의 경우는 땅에 대한 장소애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어머니는 땅보다 손자에게 더 끌리는 인물이며, 창섭은 땅을 팔아 자신의 계획을 이루려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창섭에게 집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② 아버지의 말 속에서 '돌다리'에 대한 추억을 나열하는 것을 볼 때, 돌다리는 아버지의 애착이 강하게 나타나는 장소이다.
 ③ 느티나무와 은행나무는 아버지께 경건함을 느끼게 하는 대상으로 장소애가 잘 나타나는 대상이다.
 ④ 아버지는 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17~20] (인문)

17 세부 정보의 파악 ④

비트겐슈타인은 명제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 실재하는 대상이나 사태를 언급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서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만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④는 이를 왜곡하여 경험적 대상을 언급하는 명제는 참이라고 하였다.

- 오답 피하기 >> ① 첫째 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첫째 문단과 둘째 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마지막 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18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⑤

비트겐슈타인은 명제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 실재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는 점, 다시 말해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만이 의미 있는 것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선생님은 바람직한 삶을 살아왔다는 명제는 주관적인 것이고 윤리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이며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는 명제로 비트겐슈타인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명제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②, ③, ④는 모두 경험적 세계에 대한 언급이며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는 명제들이다.

19 내용의 이해와 개념의 관계 파악 ①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에서 중요한 것이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했다'는 문장이다. 이에 주목하면 그는 '언어는 세계를 통해 설명한다 또는 언어와 세계는 대응한다.'로 풀이하면 유사한 관계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명제와 사태는 대응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사한 관계로 볼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ㄷ '논리적 그림'은 이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이므로 관계도 따질 수 없다.
 ㄹ 형이상학적 주제 역시 이 글에서 언급된 것이 아니므로 관계를 따질 수 없다.

20 진술의 의도 파악 ④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고>는 언어와 세계가 대응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만이 의미가 있다고 말 하였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자신의 <논리 철학 논고>는 의미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과 같이 말한 이유는 자신이 쓴 책의 내용이 사실은 경험적 세계가 아니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선택지 중에 이 글에 가장 어울리는 것을 사실적으로 찾으면 정답이 될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자신의 관심사를 다룬 책이 <논리 철학 논고>이다.
 ② <논리 철학 논고>는 객관적 세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책이 아니다.
 ③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셋째 문단의 내용에 위배된다.
 ⑤ 비트겐슈타인은 형이상학적 물음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다.

[21~24] (기술)

21 세부 정보의 확인 ③

이 글의 셋째 문단을 보면 소리가 두 귀에 도달하는 시간 차이가 음원의 수평 방향을 알아내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하였으므로 정면보다는 수평 방향일 때 음원의 위치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둘째 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둘째 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넷째 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다섯째 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22 추론적 이해 ⑤

넷째 문단에서 보면 ‘소리 그늘’은 고주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주파의 경우 소리가 장애물이 있을 때 반대편 귀에 잘 도달하지 않게 된다고 글에서 제시되어 있는데 이런 이유로 저주파보다는 고주파에서 ‘소리 그늘’의 활용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둘째 문단에서, 음원까지의 거리는 목소리 같은 익숙한 소리의 크기와 거리의 상관관계를 이용한다고 하였다.
 ② 수평 방향의 공간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소리의 시간차가 발생해야 한다.
 ③ 음원을 파악하는 핵심 요소는 두 귀에 도달하는 소리의 시간차이지, 시간의 다양성이 아니다.
 ④ 음원의 수평 방향 지각과 관계있는 것은 두 귀의 거리차이다.

23 구체적 자료를 통한 이해와 적용 ③

두 귀에 시간 차이를 두면 음원의 수평 방향을 알아낼 수 있다. <보기>의 ㉠은 수직 방향의 소리로 수평 방향을 설명하고 있는 ㉢과는 관계가 없다.

24 어휘의 문맥적 의미 ②

‘치우치면은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쏠리다.’는 뜻이므로, ‘어떠한 것에 특히 중점을 두다.’는 의미를 지닌 ‘치중하다’와 바꾸어 쓸 수 없다.

[25~28] (고전 소설) 박지원, ‘호질’

25 서술상의 특징 ③

(ㄷ)는 다섯 아들이 북곽 선생을 여우로 오해하는 장면이다. (ㄹ)는 그로 인해 다섯 아들이 여우를 잡기 위해 방으로 뛰어들고 북곽 선생이 도망치는 장면이다. 결국, 다섯 아들의 오해로 인해 (ㄹ)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ㄱ)에서 인물 사이의 갈등은 없다.
 ② (나)와 (다) 모두 대화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④ (ㄹ)와 (마) 모두 갈등 해결은 드러나지 않는다.

26 배경의 의미 및 기능 ⑤

배경의 의미와 기능은 사건 속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마지막 장면은 북곽 선생이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이 아닌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들판’을 성찰의 공간으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7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②

북곽 선생이 부를 이용하여 높은 벼슬을 얻었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①, ③, ④의 내용은 이 글을 통해 드러나는 북곽 선생의 위선적 모습을 언급하고 있으며 ⑤는 (다) 이후의 내용으로 확인 가능하다.

28 상황에 맞는 사자성어 ①

자화자찬(自畫自讚)은 ‘자기가 그린 그림을 스스로 칭찬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자랑함을 이르는 말’이다. 북곽 선생의 이러한 행위는 드러나지 않는다.

- 오답 피하기** >> ② 감언이설(甘言利說) :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로 범을 만나자 온갖 아부의 말을 늘어놓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임기응변(臨機應變) : ‘그때그때 처한 사태에 맞추어 즉각 그 자리에서 결정하거나 처리함’이란 뜻으로 다섯 아들이 방으로 쳐들어오자 귀신 흉내를 내며 달아나는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대경실색(大驚失色) : ‘몹시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질림’이란 뜻으로 다섯 아들이 방으로 쳐들어오자 크게 놀랐다는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전전긍긍(戰戰兢兢) :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함’이란 뜻으로 범이 이미 사라졌음에도 두려워 감히 얼굴을 못 들고 숨죽이며 엎드려 있는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9~30] (기술)

29 내용의 추론적 이해 ②

이 글에서 언급한 과수원과 양봉업자 사이의 경우 이익을 주는 외부성이 발생한다. 그러나 과수원은 과수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만 생산량을 결정하고, 사회 전체의 이윤을 위해서는 생산량을 조절하지 않으므로,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과수원과 양봉업자 사이의 외부성에서도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30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①

〈보기〉는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외부성의 사례이다. 공장에서 생산량을 줄이면 공장의 이윤이 줄어들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공장에서 생산으로 유발하는 오염으로 인한)피해가 감소하게 된다. 이때 공장의 이윤 감소보다 주민들의 피해 감소가 더 크다면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31~36] (시가 복합) (가) 광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나)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다) 이광명, ‘북찬가’

31 작품 간 공통점 찾기 ⑤

(가)에서는 ‘강물 소리’, ‘겨울 보리’ 등을 통해 고향을 환기하고 있고, (나)는 ‘봄바람’, ‘진달래’, ‘호랑나비’, ‘종달새’ 등을 통해 그리운 남촌을 환기하고 있으며, (다)에서는 남천으로 가는 ‘구름’, 흐르는 ‘내’, 나는 ‘새’ 등을 통해 그리운 어머니가 계신 공간을 환기하고 있다.

32 시어의 비교 이해 ③

‘강물 소리’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고향의 이미지이며, ‘노래’ 역시 화자가 그리워하는 남촌에서 들려오는 소리이다.

- 오답 피하기** >> ④ ‘추풍의 낙엽’은 현재 머물 곳 없는 화자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다. 여기서 ‘추풍’은 이러한 화자의 처지를 유발한 외적 요인이다.
- ⑤ (나)의 ‘구름’은 방해물을 의미하고, (다)의 ‘구름’은 남천(고향)쪽으로 달려가는 존재로 부러움의 대상이다. 따라서 (다)의 ‘구름’이 자유로운 소통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3 표현상의 특징 ④

(나)는 일관되게 영탄적 어조를 통해 남촌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③ (가)에서 고향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구두(내면적 자아)의 모습을 통해 피상적으로 고향을 바라보았던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으므로 성찰적 어조라고 볼 수 있다.

34 외적 준거를 활용한 감상 ⑤

〈보기〉를 보면, 고흐의 ‘구두’라는 그림에서는 구두뿐만이 아니라 구두를 통해 감추어져 있는 농부의 삶, 그의 고독, 대지의 모습 등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E]에서도 낡은 구두를 통해 고향에 대해 무심했던 삶 속에서도 고향이 화자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읽어볼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A]는 고향에 대한 상념에 젖어있는 화자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② [B]는 피상적으로 보아 온 ‘나’와 진정으로 바라보는 ‘구두’가 대조되어 있다.
- ③ [C]는 황혼의 나이에 고향을 진정으로 느끼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나타나 있다.
- ④ [D]에는 고향에 대한 인식이 다른 ‘나’와 ‘구두’의 대조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35 시상 전개 방식 ③

후렴구가 되려면 각 연의 끝에 동일한 구절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나)의 〈3〉에서 3연은 〈1〉과 〈2〉의 3연과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1〉, 〈2〉, 〈3〉의 3연이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어 후렴구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6 시어의 의미 ⑤

㉠ ‘내’와 ㉡ ‘새’ 모두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이다.

- 오답 피하기** >> ㉢의 ‘해’와 ㉣의 ‘달’은 모두 시간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자연물이고, ㉤의 ‘산’은 장애물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37~39] (희곡) 함세덕, ‘산허구리’

37 인물들의 성격 및 심리 파악 ③

‘윤 침지’는 ‘복조’의 죽음으로 절망에 빠져 있는 ‘노어부’의 처지에 공감하며 위로하고 있다. 과거를 회상하며 모든 것을 잃어버린 현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노어부’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 ‘윤 침지’는 ‘참어. 참는 데 복이 있다네. 그저~, ‘찾았으니 다행이군.’의 발화로 대응하며 ‘노어부’의 처지에 공감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 ① 석이가 ‘누나, 이것이 작은형이요?’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복조’와 ‘복실’은 남매 사이임을 알 수 있다.
- ② 석이는 자신의 가족에게 닥친 이와 같은 불행에 처절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형의 죽음을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③ ‘분 어머니’는 친정에 와 있는 큰 딸로, 참담한 경험을 하고서 항구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38 서술상의 특징 파악 ②

㉠은 ㉡의 상황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에서 제시된 정보는 ㉡의 정보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의 정보로 인해 관객들의 ㉡에 대한 궁금증은 해소되고 있다. ㉠이 ㉡과 상반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에 대한 관객들의 의심이 증폭된다는 진술 또한 타당하지 않다.

39 소재의 기능 파악 ④

[A]에서 ‘처’는 ‘노어부’가 가지고 나온 ‘팽이’가 옛날에 ‘복조’가 쓰던 것임을 강조하여 극심한 정신적 혼란 속에서 ‘복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즉 ‘팽이’는 ㉠처럼 ‘처’가 내면 심경을 직접 토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기능이 아닌 ‘처’의 내면 심경을 직접 토로하게 되는 계기로 기능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 ① ‘노어부’는 ‘팽이’를 들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임으로써 세상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 ③ ‘처’와 ‘노어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

[40~42] (언어)

40 내용의 일치 ②

둘째 문단에서 ‘사성통해’와 같은 조선의 운서에서는 한글로 발음을 표시하였음이 진술되어 있다. 따라서 ‘사성통해’에서 반절법으로 한글의 발음을 표시했다는 진술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41 내용의 추리와 상상 ②

㉠의 이유는 첫째 문단에서 초성 [t]를 표시하기 위해 ‘德(덕)’ 대신에 ‘동(東)’과 같은 다른 한자 들이 발음 표시에 사용되었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어떤 한자가 둘 이상의 발음을 가질 때에는 그 발음을 표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42 사례의 적절성 판단 ①

<보기>에서 제 음성 기호인 B는 음성적 차원에서 무성음[k]와 유성음[g]로 발음하는 것을 일대일로 대응하여 표기[kog-]하고 있다. 반면에 A는 음소적 차원에서는 [k]와 [g]모두 ‘ㄱ’으로 표기([고궁])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결국 A와 B를 비교해 볼 때 한글의 표음성은 출현 환경이 다른 [k]와 [g]를 동일한 말소리로 인식하여 음소적 차원이 아닌 음소적 차원에서 말소리를 적고 있음을 넷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43~46] (예술)

43 내용 전개 방식의 파악 ③

첫째 문단에는 가사가 있는 성악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에게 내용 없는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에 직면한 기악의 상황이 나와 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바로크 시대 음악가들의 이론이 과정에 따라 제시되어 있다. ‘정서론’과 ‘음형론(부이마이스터)’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바로크 후반기 마테존의 이론과 한 세기 뒤 한슬리크의 주장이 넷째 문단과 다섯째 문단에 소개 되어 있다. 결국 기악이 직면한 문제적 상황을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44 내용의 일치 ④

넷째 문단에 따르면 마테존은 아리아를 분석하면서 가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주제 가락의 착상과 치밀한 전개 방식 등에 집중하였음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가사의 의미와 관련 없이 구성적 측면에서 음악을 논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마테존이 아리아를 논하면서 가사의 의미와 악곡의 전개 방식들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는 진술을 적절하지 않다.

45 사례에의 적용 ④

부이마이스터는 웅변에서 말의 고저나 완급, 장단 등이 호소력을 이끌어 내듯 음악에서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낳는 장치들이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것은 웅변의 장단에 해당하는 장치가 음악에도 있음을 제기한 것이지, 말의 장단을 온습표로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아니다. 음형론에 속하는 그의 주장에 따르면 가사의 의미에 따라 그에 적합한 음형을 표현 수단으로 삼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온습표에 해당하는 의미는 <보기>에 제시된 가사에 따르면 ‘아무 말 없네’의 상황이 지속되는 모습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6 어휘의 의미 파악 ①

가야금과 같은 현악기는 줄을 튕겨서 소리를 내므로 ‘가야금을 뜯다’가 적절하다. 그리고 장구는 손이나 물건 따위를 부딪쳐 소리 나게 하는 방식이므로 ‘장구를 치다’가 적절하다.

[47~50] (과학)

47 미루어 알기 ⑤

특정한 시점에서 특정한 전자의 운동량과 위치를 알려면, 되도록 전자에 교란을 적게 일으키면서 동시에 두 가지 물리량을 측정해야 한다고 넷째 문단에 진술되어 있다. 다섯째 문단에서는 운동량이 작은 광양자를 충돌시키면 전자의 운동량을 적게 교란시켜 운동량을 상당히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판단한다면 전자의 운동량을 측정하려면 전자보다 광양자의 운동량이 작아야 한다. 만일 광양자의 운동량이 큰 빛을 쓰면 충돌한 전자의 속도가 큰 폭으로 변하게 되어 운동량 측정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⑤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48 내용의 추리 ①

㉠(책을 보는 것)의 경우 책에 반사되어 튀어 나오는 광양자를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책을 보지

만, 이 빛이 책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턱없이 작다. 즉 책에 광양자가 충돌할 때에도 교란이 생기지만 그 효과는 무시할 만하다. 그런데 같은 방식으로 소립자 세계에서 어떤 입자를 사용하여 입자 수단이 다른 대상에 충돌시켜서 보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즉 ㉡(전자를 보는 것)은 전자를 보기 위해 빛을 쏘아 전자와 충돌시킨 후 튕겨 나오는 광양자를 관측할 경우 대상을 교란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관찰 대상이 되는 입자와 관찰의 수단이 되는 입자까지도 상호 작용의 변화를 겪게 된다. 결국 ㉠과 달리 ㉡은 대상을 교란하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49 사례에의 적용 ⑤

운동량이 작은 광양자로 이루어진 빛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관측 순간의 전자의 위치, 즉 광양자와 전자의 충돌 위치의 측정은 부정확해진다고 다섯째 문단에 설명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보기>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더 긴 파장의 빛을 사용하면 전자 위치의 오차 범위는 ㉢보다 줄일 수 없다.

- 오답 피하기** >> ① 일정한 전압에 의해 가속된 전자 빔은 전자의 운동량으로 볼 수 있다. 전자빔에 일정한 파장의 빛(광양자)을 충돌시키면 전자의 운동량을 교란시켜 운동량 ㉢을 측정할 수 있다.
- ②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이므로 측정된 운동량(㉢)을 알고 전자의 질량을 알면 전자의 속도를 구할 수 있음이 넷째 문단을 통해 제시되어 있다.
- ③ 둘째 문단에서 주의 깊게 실험을 설계하고 더 나은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교란을 줄여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고 했으므로 깊은 파장의 빛을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서도 실험의 정밀도에 따라 운동량의 측정 오차는 ㉢보다 커질 수 있다.
- ④ 광양자의 운동량이 큰 빛을 쓰면 광양자와 충돌한 전자의 속도가 큰 폭으로 변하게 되어 운동량 측정의 불확정성이 오히려 더 커지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전자 운동량의 측정 범위는 ㉢보다 커질 것이다.

50 어휘의 의미 파악 ①

측정은 '정한 양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양의 크기를 잴'을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① '잡다'의 경우 '어렵거나 짐작하여 헤아리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 '측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오답 피하기** >> ②, ③, ④, ⑤ '수확량', '길이', '넓이', '높이' 는 모두 측정 가능한 것들이다. 따라서 '대중해', '재어', '가능할', '어림하여'는 ㉡ '측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로 볼 수 있다.